

9

어려움을 이겨 낸 사람들

◆ 글을 읽고 어려움을 이겨 낸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차윤과 손강이 어떻게 가난을 이겨 내고 공부했는지 읽어 봅시다.

옛날 중국에 차윤과 손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윤은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 등불에 넣을 기름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차윤은 여름철에 개똥벌레를 명주 주머니에 넣어 책에 비추어 등불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손강 역시 집이 가난해 등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손강은 겨울이 되면 쌓인 눈에서 반사되어 비치는 달빛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스티븐 호킹

“엄마, 저 별 좀 보세요!”

새까만 밤하늘에 보석 같은 별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어요. 스티븐은 하늘에 꼭 박혀 있는 별에서 눈을 떼 수 없었어요.

“스티븐, 이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엄마는 스티븐의 반짝이는 두 눈을 다정하게 들여다보았어요.

“저는 우주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매우 궁금하거든요!”

스티븐은 넓은 하늘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어요.

스티븐은 열일곱 살 때, 영국에서 이름난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스티븐은 특히 과학과 수학에서 실력을 나타냈어요. 하루는 과학 선생님이 어려운 숙제를 냈어요.

“이 책에 나온 문제를 풀어 오게.”

스티븐은 문제를 푸는 대신 그 책의 잘못된 곳마다 모두 빨간 표시를 했어

요. 선생님은 스티븐이 가져온 책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티븐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스티븐은 친구들과 신나게 농구 시합을 했어요. 시합이 끝난 뒤에 스티븐은 신발 끈을 묶으려고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그때였어요.

“어! 신발 끈을 묶을 수가 없어.”

스티븐은 손가락이 막대기처럼 뻗뻗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루게릭병[●]입니다. 앞으로 2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스티븐은 너무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스티븐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븐은 계단에서 심하게 굴렀어요. 머릿속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스티븐은 무서움에 온몸을 벌벌 떨었어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능 검사를 받은 스티븐은 지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난 계속 공부할 수 있어!”

스티븐의 마음에 희망이 솟구쳤어요. 스티븐은 지팡이를 짚고 전보다 더 절뚝거렸지만 과학 공부에 온 노력을 기울였어요.

“우주의 신비를 꼭 밝히고야 말겠어.”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학교를 옮긴 스티븐은 데니스 시아마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은 스티븐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했어요. 그리고 스티븐이 어려운 우주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시아마 교수의 도움으로 스티븐은 박사가 되기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팽창하는 우주의 성질’

스티븐이 쓴 글의 제목이에요.

장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한 스티븐은 훗날 세계 최고의 우주 과학자가 되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지요. 스티븐 호킹이 위대한 것은 천재라서가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고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 루게릭병: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이 약해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

1 「스티븐 호킹」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스티븐 호킹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2 스티븐 호킹이 괴로워 견딜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3 데니스 시아마 교수는 스티븐 호킹을 어떻게 대했나요?

2 스티븐 호킹이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두 가지 까닭을 써 봅시다.



3 **보기**의 문장을 넣어 짧은 글을 써 봅시다.

보기 눈을 뚫 수 없었다.

4 스티븐 호킹에게 칭찬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5 장영실이 노비 신분을 어떻게 이겨 냈는지 생각하며 「장영실」을 읽어 봅시다.

장영실

장영실은 세종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별의 움직임과 위치를 알 수 있는 ‘혼천의’를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로 물시계인 ‘자격루’도 만들었습니다. 세종 대왕은 이런 장영실에게 큰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장영실의 원래 신분은 관아[●]의 노비였습니다.

장영실이 동래 지방 관아의 노비로 살 때였습니다. 가뭄이 심하게 들어 논바닥이 거북 등처럼 쪼쪼 갈라졌습니다. 농부들은 논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곰곰이 논둑을 걷던 장영실에게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윗마을에 있는 저수지에서 논으로 물을 끌어오겠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저수지보다 낮게 도랑을 파서 아래로 흐르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몇 날 며칠 동안 도랑을 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장영실이 저수지의 둑을 텃습니다. 그러자 저수지의 물이 콧콧 흘러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사또는 장영실의 재주를 자세히 쓴 편지를 임금님께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얼른 장영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은 꿈도 꾸어 보지 못했던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가 장영실이구나. 이제부터는 관아의 노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하거라.”

임금님은 장영실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 관아: 옛날에 고을을 다스리던 곳



배움 다지기

● 글을 읽고 인물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 냈는지 알아냈나요?

